

# 社會主義的 從屬：理論的 考察 및 쿠바의 事例研究

安 清 市\* · 朴 永 圭\*\*

|                            |  |
|----------------------------|--|
| <目 次>                      |  |
| I. 序論                      | 2. 社會주의적 종속                                  |
| II. 社會주의적 종속에 관한<br>이론적 고찰 | III. 쿠바에 관한 사례연구<br>1. 혁명전의 쿠바<br>2. 혁명후의 쿠바 |
| 1. 자본주의적 종속과 사<br>회주의적 종속  | IV. 결론                                       |

## I. 序論 : 문제의 제기

초기의 從屬理論에 의하면 종속현상이란 기본적으로 資本主義體制 内部의 고유한 현상으로 규정되었다. 獨占資本主義는 이윤을 저하현상과 자본의 집 중화현상 및 그로 인한 거대독점체의 자본수출 등을 内在的 屬性으로 갖는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체제의 中心部와 周邊部 사이에는 政治·經濟·軍事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종속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종속이론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이 말을 바꾸어 본다면 종속이론가들은 종속현상을 社會主義體制와는 無關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즉 종속이란 자본주의체제의 모순구조 및 비효율성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종속현상은 사회주의의 이행과 아울러 자동적으로 극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歷史的 經驗과 일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종속현상은 사회주의체제 내에도—비록 자본주의내의 그것과 반드시 동일한 현상은 아닐지라도—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종속이론의 일각에서는 ‘社會主義的 從屬’이라는 새로운 論爭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 서울대 사회대, 정치학

\*\* 서울대 정치학碩士

체제로 이행한 쿠바나 東歐共產圈 국가들과 소련과의 관계에서도 帝國主義的 속성이 발견되며, 이러한 속성은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착취—피착취 관계와 유사성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은 사회주의 제국들이 資本主義 世界體制와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社會主義 經濟가 처해있는 대내외의 여건들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곧바로 자본주의적 종속현상으로부터의 斷絕을 가져온다는 생각은 그릇된 假說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사회주의적 종속논의에 대해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反論을 제기한다. 이 反論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종속논리는 부르조아적 觀念論에 치우쳐서 社會現實을 단순히 機械的으로 파악한 雖서 나온 逆說에 불과하다고 한다(Johnson, 1979). 이 견해에 따르면 자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은 사회주의 체제는 그 특성상 자본주의체제의 종속관계에서 나타나는 잉여누출 메카니즘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社會主義的 從屬’이란 원칙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무역의존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들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하의 의존성과는 판이한 현상일 뿐 아니라 단지 共產主義로의 移行期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사회주의적 종속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적 종속현상과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에 대하여 是非를 가리는 일은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과 經驗的인 사실에 대한 檢證을 동시에 요하는 작업이다. 이 論文은 이러한 두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착수되었다. 사회주의적 종속논의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규명하려면 먼저 사회주의적 종속문제를 자본주의체제에서 말하는 종속과 동일한 이론적 지평 위에 놓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데 대한 논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사회주의체제의 종속관계는 자본주의적 종속이론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이론적 틀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의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적 속성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세계체제로의 재편입 현상을 놓고 볼 때 사회주의적 종속문제도 자본주의적 종속이론의 논리적 연장선 위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우리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지평에서 제기되는 제 논쟁을 정리하는 일부터 착수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이 논쟁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부분으로부터 이데로올기적 편견을 벗겨내는 한편 과학적 분석과 경험적 관찰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입장 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주의 국가에도 종속현상이 존재하느냐, 과연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 만이 유일한 종속극복책이요 자율적 발전전략의 방안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 어가는 궁극적 작업은 역시 歷史的事實과 經驗的分析에 의거하여 접근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쿠바에 관한 事例研究를 통하여 사회주의적 종속논의에 관한 이론적인 논쟁이 과연 歷史的·經驗的 사실과 어느정도 적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명해 보려고 한다. 혁명전의 쿠바는 자본주의적 종속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는 나라였다. 사회주의 혁명으로 쿠바는 자본주의적 종속을 극복하였는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적 종속’으로 전락하였는가? 쿠바의 혁명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는 사회주의적 종속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논쟁에 내포되어 있는 이론적·경험적 타당성을 밝혀내는 데 매우 유익한 지적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사회주의적 종속’이란 개념은 다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첫째,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세계체제로부터 충분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일단 이들이 종속적 상황이라는 구조적 제약속에 치해 있다고 이해할 것이다. 둘째로 만약 소련이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제국주의적 착취를 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결과가 종속상황에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면 우리는 주변부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이란 중심부 국가에서 오는 외적인 종속상태에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종속에 대한 두개의 의미규정은 경험적 분석의 대상이므로 제각기 두가지의 상이한 단위를 암시해 준다. 즉 첫번째 의미의 종속은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요하며,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하나의 집합적 단위로서—어느정도 계한된 자율성을 갖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각도에서 검토될 수 있다. 두번째 의미의 종속은 소련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대외관계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요하며, 주로 소련의 제국주의적 속성이라는 각도에서 검토 가능하다. 연구의 자료와 지면관계상 첫번째 차원의 분석은 주로 이론적 측면에서만 고찰될 것이며, 그 범위 또한 제한된 수준

에서만 취급될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차원의 물음은 주로 소련과 동구, 쿠바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역사적·경험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 Ⅱ. 社會主義的 從屬에 關한 理論的 考察

### 1. 資本主義的 從屬과 社會主義的 從屬

#### 1) Frank vs. Ray

從屬理論은 기본적으로 中心部 獨占資本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그로 인해 생긴 周邊部 사회의 구조적 왜곡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본주의理論의 한 단면이다. 종속현상은 중심부 자본주의와 주변부 자본주의 상호 간의 불평등한 관계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며,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체제에 고유한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종속이란 역사발전 단계에서 볼 때 자본주의 시대에서 일어나는 자본주의체제의 한 모순구조이며, 자본주의가 소멸하면 종속현상도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초기 從屬理論가들 사이에는 널리 깔려 있었다.

프랑크에 의하면 이러한 資本主義的 從屬關係의 歷史的 계기는 16세기에 이미 局地的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중심부 자본주의와 주변부 자본주의로 二分化된 종속관계의 골격은 그후 제국주의와 獨占資本主義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전세계적인 체계로 완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속구조의 여파로 말미암아 주변부의 잉여는 중심부로 이전되었고 주변부 사회의 계급구조는 왜곡된 형태와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Frank, 1969). 종속현상이 자본주의체제의 고유한 모순구조와 그 구조속에서 운용되는 資本의 論理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와는 무관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초기 종속론자들은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에서 암시되는 바에 따른다면 私的인 자본의 논리와는 무관한 사회주의체제에는 종속현상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깔려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초기 종속이론가들은 종속극복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체제전환의 문제로 인식한 듯 하다. 즉 종속을 탈피하는 길이란 사회주의체제로의 이행이며, 이것만이 종속을 “자동적으로” 극복하는 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종속현상은 자본주의에 국한된 문제라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 포괄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나온 사람은 데이비드 레이(Ray, 1973)이다. 레이는 종속현

상을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보는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종속이냐 비종속이냐 하는 선택이 아니라 다만 어떠한 형태와 어느 정도의 종속이냐 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비종속이란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認識하에서 레이는 기존의 종속이론을 다음 세가지 점에서 수정하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소련의 帝國主義도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와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지배로부터의 완벽한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사회주의 진영으로의 종속이동을 의미할 뿐이다.

소련의 경제적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다양성 만큼이나 중요한 사실로서 존재한다. 미국에 의해 라틴 아메리카에 부여된 경제적 종속과 소련에 의해 동구 유럽에 부여된 경제적 종속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존재한다(Ray, 1973:8).

라틴 아메리카가 자본주의 중심부에 의한 종속으로 저발전된 것처럼 동구 유럽도 사회주의 중심부에 의한 종속으로 저발전되었다는 것이 레이의 주장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에서도 종속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만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더 크고 넓은 人間의 本性에서 찾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종속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代案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보다 다양한 무역상대국의 발견, 외국투자의 재조정, 국제무역상 거래능력의 提高 등의 방법을 통한 완화책이 가능할 뿐이다.

둘째, 자본주의 그 자체는 종속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종속의 원인은 오히려 이웃을 착취하고자 하는 人間의 本性과 제국주의적 충동에서 찾았던 문제이기는 하나 자본주의 그 자체는 아무런 罪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만큼이나 소련도 제국주의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속은 資本主義나 社會主義와 같은 體制의 부산물이 아니라 인간본성과 국가의 기원에서 생기는 역사적 필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세째, 政治的인 領域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政治的 支配階級이 중심부 지배계급에 예속된 것처럼 동구의

지배계급도 소련의 지배계급에 예속되어 있다. 동구의 政治過程에 미치는 모스코바의 영향력은 라틴 아메리카에 미치는 워싱턴의 정치적 입김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요컨대 레이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종속도 자본주의적 종속과 기능적으로 다를 바 없다.<sup>(1)</sup> 따라서 이것은 자본주의적 종속의 分析論理와 똑같은 次元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 2) Packenham

자본주의적 종속이냐 사회주의적 종속이냐의 문제는 개념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로버트 팩Kenham(Packenham, 1983)은 종속을 歷史主義의 概念과 分析的 概念으로 나누어 접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종속을 의미규정하면 종속이란 통상적으로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중심과 주변간에 일어나는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분석적 입장에서 보면 종속이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중 어느 체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특징들로 이해된다.

歷史主義의 의미에서 본 종속이란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의 왜곡된 經濟發展, 社會・經濟的 不平等, 政治的 權威主義와 같은 상황을 지칭한다. 도스 산토스나 프랑크와 같은 급진론자들이 말하는 종속은 이러한 의미의 종속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속은 분명히 자본주의체제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징에 속한다. 그러나 分析的 시각에서 보면 종속이란 어느 체제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종속현상이란 곧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가해질 수 있는 특정의 상황적 제약이나 의존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구분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종속문제는 자본주의의 그것과는 다른 이론적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개념구분에 입각하여 도출 가능한 종속의 제특징들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주의적 종속(歷史主義의 概念規定에 따른 종속)은 다음과 같은 상황과 특징들을 가진 현상으로 이해된다.

첫째, 종속은 한 나라의 政治經濟가 國際 資本主義體制에 의해 조건지워지거나 제약됨으로써 유발된 저발전 상태를 지칭한다.

둘째, 종속의 결과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브라질의 경우처럼—‘연합종속적 발전’(associated-dependent development)과 같은—다소 긍

---

(1) 이러한 Ray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는 G. Guy의 “Socialism and Dependenc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을 참조할 것.

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속이론가들은 아무도 그것이—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바람직한 발전의 형태라고는 보지 않는다.

세째, 종속은 대내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양측면을 가지며, 그 과정은 내적 차취와 외적 차취의 복합적 국면을 통하여 표출된다.

네째, 종속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종속으로부터의 탈출은 불가피하게 사회주의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sup>(2)</sup>

다섯째, 종속은 오로지 포괄적, 전체적 의미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종속의 “내적”, “세계적”, “구조적”, “역사적” 요소가 불가분하게 복합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역사主義的 觀點에서 보면 사회과학은 政治的 團爭과 분리될 수 없는 영역으로서 理論은 實踐의 수단이다.

이처럼 歷史主義的 觀點에서 이해할 경우에는 종속이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체제내에 국한된 현상으로 규정된다. 사회주의란 곧 종속이 극복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사회주의에서는 종속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파케햄의 개념 구분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종속문제는 자본주의적 종속을 분석하는 틀과는 별개의 理論的 地平과 경험적 맥락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뉴발(Duval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 이론가들이 소련의 제국주의와 소련에 대한 동구의 종속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은 근본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그것은 맥락이 전혀 다른 분석과정과 지적인 틀을 요구하며 별개의 理論體系를 적용시켜야 설명가능한 것이다(Duvall, 1978:58).

그리나 한편, 종속의 개념은 分析的 입장에서 다를 경우 종속상황은 사회

(2) 이 연결고리는 다음 인용에 잘 표현되어 있다. “종속개념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이론 속에서 정의된다. 그러므로 종속이론의 틀은 불가피하게 마르크스의 자본주의론에 연결되어 있다.” (Cardoso & Faletto, 1979: ix-xxiv), “종속의 代案으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 자본주의의 완성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로의 진입로를 어떻게 개척하느냐 하는 것이다.” (Ibid, xxiii-xxiv).

주의내에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분석적 입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배나 착취와 같은 “자본주의적 종속”의 특징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특성은 개념적 定義나 假定의 세계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經驗的으로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Packenham, 1983:36) 歷史主義的 입장의 종속이론이 종속 아니면 비종속이라는 二分法的 論理에 치중하는 데 비해 分析的 입장에서는 종속의 정도를 문제삼는다. 그리고 이 입장은 주변부 사회의 經濟, 制度, 集團, 階級과 같은 단위들이 처한 종속의 형태와 정도들의 相對的 多樣性에 주목할 것을 分析者에게 요구한다.

歷史主義的 입장은 주변부 자본주의가 菲연적으로 착취・왜곡되는 계급 및 국제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적인 발전형태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分析的理論은 그러한 주장이 하나의 假定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은 자료와 개별적인 事例들에 대한 檢證을 통해 확인되어야 함을 내세운다.

이 연구의 주제에 되돌아가서 양자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본 종속론에 의하면 자본주의하의 모든 힘의 불균형은 菲연적으로 착취적일 수밖에 없으나 사회주의하에서는 힘의 불균형이나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석적 종속론에 따르면 그러한 힘의 불균형이나 착취현상은 존재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관계가 菲연적이라는 命題를 거부한다. 그리고 종속, 불균형, 착취 등은 자본주의체제의 특수성에서만 기인하는 속성이 아니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는 원인,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유하는 보편적 원인에 기인하기도 한다고 한다.

分析的 입장은 자본주의체제의 주변부를 菲연적으로 착취한다는 歷史主義의 解釋을 거부한다. 그 대신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共히 적용 가능한 개념과 변수를 채택할 것을 주장한다. 예컨대 허쉬만(Hirschman, 1978:46)은 “지배나 착취라는 말 대신에 ‘국제무역의 구조와 비대칭적 역학관계’라는 개념을 채택한다.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면 자본주의 국가간 사회주의 국가간 간에 서로 구분할 필요없이 상호간에 일어나는 종속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것이 분석적 입장에서 종속현상을 보는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르면 한 나라나 特定階級이 從屬的이라 함은 상대적으

로 그 힘이나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비종속적이라 함은 상대적으로 힘이 보다 강하며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적 입장에 따르면 만약 A국이 그 파트너인 B국보다 영향력이 약할 경우, A국은 B국에 대해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전 자본주의전 간에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러나 종속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A국이 B국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종속되어 있다 함은 B국에 의해 A국의 힘이 더 약하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종속의 극복도 반드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종속이나 협약함을 감소시켜 상대적 자율성이나 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 2. 社會主義的 從屬：分析의 戰略, 單位 및 理論的 資源들

分析的 觀點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적 종속”을 定義한다면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不平等한 關係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規定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종속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속성이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면 그러한 속성은 社會主義的 從屬現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사회주의적 종속은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체제내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종속현상도 염두에 두고 분석해야 한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제국은(소련을 포함해서) 자본주의세계체제의 한 기능적 부분으로서 제각기 內的인 從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종속에 대한 첫번째 論議는 먼저 자본주의세계 체제내에서 이들이 얼마만한 구조적 자율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교환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 특히, 소련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중심으로 다시 이 문제를 접근해 볼 필

(3) 조지 모델스키 (Modelska, 1983:49-70)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근대 세계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일이나 패권의 移轉, 민족국가의 건설, 세계체제의 전환 등은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 주기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동하는 등 단순하고 적선적인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체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사이의 역학관계와 위상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가 있다. 예컨대 소련에 대한 분석은 다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소련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내에서 반주변부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련을 자본주의체제에 종속된 하나의 체제라는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다. 둘째로 소련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 제국주의적 위치를 차지하거나 착취의 *加害者*가 될 수 있다는 측면, 즉 사회주의적 종속의 *產出國*으로서 탐구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과제에 유의하면서 우리는 아래에서 사회주의적 종속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理論的 觀點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 1) 세계체제론의 觀點

종속이론의 특징중의 하나는 세계 자본주의와 그 운용 메카니즘을 하나의 큰 체계로서 파악한다는 것이다. 세계자본주의는 총체적으로 영여를 착취하는 하나의 경제체제로서—일국의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세계적 부르조아계급(中心部)에 의한 영여의 착취와 전유를 근거로 성립되는 단위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세계체제내에서는 영여를 착취하는 자본가 계급(中心部 資本主義)과 영여를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급(周邊部 資本主義)의 대립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대립은 필연적으로 양자 사이의 종속적 관계를 탄생시킨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세계체제내에서는 주변부가 중심부에 종속되어 자신의 영여를 착취당한다.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내에서 주변부 혹은 반주변부적 위상에 처해있다. 사회주의적 종속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위상을 검토하는 과제로부터 출발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發展樣式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타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세계체제내에서 주변부 혹은 반주변부로서 머무르며 세계체제의 유지와 작동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는 단위들이다. 그러므로 이들 나라들은 自律的이고 自生的인—社會主義的一生產樣式에 기반한 民族經濟를 가지지 못하고 자본주의체계 내에서 기능하는 한 부분으로서 편입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종속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선 자본주의세계체제내에서 소련은 그 반주변부적 위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서방측에 어느정도로 종속적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살펴보기로 하자.

소련은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볼 때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中心部의 周邊部’ 즉 ‘半周邊部’로 규정된다(Wallerstein, 1984:61).<sup>(4)</sup> 왈라슈타인(1979:1-65)에 의하면 자본주의 세계체제란 단일한 노동문화와 다양한 정치세계를 가진 하나의 단위로 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中心部와 周邊部, 半周邊部 사이의 교환체계를 중심으로 운용된다. 세계체제에서 중심부는 고도로 문화된 노동체계와 높은 생산성을 이용하는 제조업 분야의 상품생산을 특화한다.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기업을 통하여 중심부는 内需市場과 세계시장 양쪽에서 판매할 상품을 대량생산한다. 반면에 주변부는 주로 저임금과 강요된 노동과 연계된 단순한 문화를 통하여 1차상품을 많이 생산한다. 상대적으로 저급한 기술, 자본결핍 등으로 인하여 주변부의 상품—주로 원료와 식량—은 중심부의 제품에 비해서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교환된다.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일어나는 不等價交換 때문에 주변부의 자본축적은 더욱 어렵다. 반면 중심부의 자본축적을 그만큼 더 용이하게 한다. 또한 중심부의 노동자들은 보다 높은 附加價值의 生產性을 지니고 중심부의 자본가들은 대량투자를 통해 중심부의 자본축적을 더욱 가속화시켜 결국 중심—주변과의 괴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중심부는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부르조아 階級과 여러 층의 중간계급, 그리고 임금노동자로 대별되는 복합적인 階級構造를 가진다. 또 이처럼 복합적인 계급구조 때문에 중심부에서는 자본과 노동 사이에 잠정적 연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과 가능성이 종종 창출된다.<sup>(5)</sup> 중심부의 자본가계급은 세계경제의 交換體系가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도록 自國의 政治權力에 압력을 가한다. 또한 중심부의 지배계급과 국가기구들은 자본의 흐름, 노동조건, 기술개발, 군사력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교환체계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세계체제의 규모와 성장은 중심부 국가권력과 중심부 市場의 교환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반주변부는 중심부적인 경제활동과 주변부적인 것들이 혼합된 영역을 말한다. 반주변부는 중심부에 대해서는 주변부로서 作動하고, 주변부에 대해서

(4) Wallerstein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Scymanski는 ‘사회주의 세계체제’라는 시각에서 反論을 제기하고 있다.(Scymanski, 1982 참조)

(5) 이에 반해서 주변부사회는 허약한 부르조아 계급과 식민지적 수출경제 하에서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노동자로 구성되는 단순하고 二元化된 계급구조를 갖는다.

는 중심부로서行動한다. 그 결과 반주변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반주변부는 무역구조에 있어서 중심부와 주변부 양쪽으로 향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둘째, 반주변부의 경제정책은 심한 ‘정치화’ 경향을 보인다. 세째, 반주변부는 앞서 언급한 중심부의 복합적 계급구조와 주변부의 二元的 계급구조가 과도적으로 혼합되어 나타나는 중간적 성격의 계급구조를 노정한다(Wallerstein, 1979:6). 또 반주변부국가는 중심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자신의 영토를 보호하는 한편, 새로운 주변부지역에 대해서는 지배권을 얻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끊임없이 개입한다. 경제적으로는 중심부에 대한 무역의존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한편 주변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이 침투하려고 기도한다.

이러한 세계체제론의 기본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종속문제를 접근해 보자.

소련은 애초에 유라시아 지역의 중간적인 위치로 인해 반주변부로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다(Luke, 1985:332). 이러한 소련의 반주변부적 위상은 제정러시아 시대에는 서구에 대한 ‘제정·산업적 종속’으로 나타났다. 혁명 후 소련의 종속적 상황은 국가주도의 공업화 전략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련은 ‘기술·산업적 종속’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상태로 移轉해 갔다. 오늘날에는 소련의 과학기술이 분야에 따라서는 매우 고도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歷史的 속성으로 인해서 소련의 생산자체가 발달된 산업체계와 기술적 하부구조를 구비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Luke, 1985:332-349).

제정 러시아 시대의 소련은 유럽의 중심부에 대해서는 원료를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주변부로서 기능했다. 한편 아시아의 주변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하나의 중심부로서 기능했다. 제정러시아는 반주변부적 위상때문에 근대적인 서구의 관료제도와 군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從屬되어 갔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상품수출을 통해 아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그 주변부로 편입시켰던 것이다. 반주변부적 위상으로 인해 제정러시아의 소련체제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관료적 통제 메카니즘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自生의 부르조아 계급의 성장이나 기술진보, 생산성 향상에는 실패하는 역사적 요인을 안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발전 요인때문에 러시아는 크리미아전쟁에서 유럽의 중심부 세력에 군사적으로 패배하였

다. 그 후 소련은 서구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소위 종속적 발전에 의한 새로운 전략을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은自律性을 크게 회생하면서까지 유럽의 직접투자를 적극 수용하고 이에 의존하게 되었다.<sup>(6)</sup> 종속적 발전전략을 추구한 결과로 혁명 전까지 러시아는 상당한 정도의 외형적인 성장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반주변부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채로·일 전쟁의 참패라는 또다른 패배만을 가져왔으며, 혁명을 맞게 되었다. 혁명 전 러시아는 半產業化(semi-industrialization)를 달성한 반주변부적 경제를 가진 ‘저발전된 강대국’으로 묘사되는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레닌은 제정러시아의 ‘군사—봉건’ 체제를 유럽경제에 재정, 산업, 무역상으로 광범위하게 종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내에서 ‘가장 허약한 고리’를 이루고 있는 나라로 규정했다. 러시아의 혁명적 과업은 따라서 국내 상품생산과 内需市場의 확대를 통해 반주변부적 종속상황으로부터 탈피하는 데 맞추어졌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상품의 價格과 노동의 價值를 결정짓는 세계자본주의체제’(Amin, 1984:14)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러시아의 원료와 유럽의 제조품 사이의 不等價交換을 타파하는 것이었다. 러시아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고리로부터 탈출시키려면 두가지의 전략이 가능했다. 첫째는 도시와 농촌 사이에 ‘等價交換’을 이루어 후진성을 탈피하는 길이며, 둘째는 소련경제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價值體系로부터 독립시키는 길이었다. 스탈린은 결국 이 두 방법 중에서 후자의 전략에 주로 의존하는 선택을 하였다. 즉 러시아의 거대한 농촌주변부와 소규모의 도시중심부 사이의 ‘부등가교환’을 그대로 둔 일종의 ‘內的植民主義’(Gouldner, 1977-78:13)政策이 스탈린에 의해서 탈종속의 전략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식의 국가주도적 전략은 사회주의로 移行해가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을 촉진시키지 못한채 결국은 우월한 외국기술에 점점 더 종속돼가는 양상을 초래했다. 또한 농촌으로부터의 잉여착취에 기초한 산업화 계획은 혁명 이전의 반주변부적 속성을 개선시키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6) 세계 제 1 차 대전까지의 소련 산업중에서 41%에 해당하는 화학공업과 63%에 해당하는 기계류의 생산, 96%의 조선업, 100%의 자동차산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소유되었다. (McKay, J., *Pioneers for Profit: Foreign Entrepreneurship & Russian Industrialization, 1885~1913*, Chicago, IL:Univ. of Chicago Press, 1970, p. 33)

전쟁 산업의 발달에 치중한 나머지<sup>(7)</sup> 새로운 기술의 자체개발은 등한시된 반면에 점점 더 유럽의 우월한 기술에 의존해가는 결과가 나타났다.<sup>(8)</sup> 한마디로 스탈린식 발전전략은 소련을 점점 더 서구기술에 동화시키는 대價로써 생산 확대를 피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2차대전 후 소련은 자본주의 중심부의 승리에 편승하여 적지 않은 기술적 횡재를 차지했다.<sup>(9)</sup> 동시에 동구를 비롯한 위성국들에 대해 경제적 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을 중심부로 한 새로운 社會主義世界體制의 건설을 성공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세계체제를 건설하는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소련의 위성국인 동구나 중공, 북한, 북베트남 등은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에서의 주변부적 위상을 물려받고 있었다. 소련 스스로도 그 반주변부적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에는 세계경제와 점점 더 깊숙히 관계를 맺어오고 있기 때문이다(Chase-Dunn, 1980; Luke and Boggs, 1982; Clark and Bahry, 1983).

1950년에서 1957년 사이 소련의 무역량은 3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기대했던 獨立的 社會主義 발전, 특히 內的인 自給體制의 경제는 달성되지 못한 꿈으로 남아있다(Parrot, 1983: 127-159).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탈출을 계획했던 소련의 혁명 프로그램은 소련경제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반주변부적 위치로부터 독립시키는 데 오늘날까지 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소련경제는 점점 더 서방과의 관계에 의존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에 소련은 전체 무역량의 20%를 서방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구와의 무역량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31%로 증가되었다. 소련의 당지도부는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중심부의 경제적 해게모니를 광범하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련이 갈수록 더 많은 서방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보아도 서방의 기술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이 잘 나타나고 있다(Luke, 1985: 344-345). 오늘날 소련은 그 경제를

(7) 1940년대에 전체산업량의 26%에 해당하는 군수물자의 생산은 2년 뒤인 1942년에 64%로 증가했다.(Parrot, B., *Politics & Technology in the Soviet Union*, Cambridge, MA: MIT Press, 1983, p.114)

(8) 1930년에서 1945년 사이에 맺어진 서구와의 기술원조협정은 200件을 상회한다.(Sutton, A.C., *Western Technology and Soviet Economic Development*, Vol. 2, Stanford CA:Hoover Institution Press, 1971, p.101.)

(9) 1944년에서 1951년 사이에 소련으로 移轉된 기술장비는 최소한 100억불(1938년 달러가치)이 넘는다.(Sutton, op. cit, pp.26-39)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더욱 긴밀하게 밀착시켜 가고 있다. 이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전설이라는 혁명의 이상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인 것이다.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소련은 분명히 제정러시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일부분이요, 특히 반주변부로서 ‘사회주의적 종속’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울 수 있다.

중공에 대해서는 소련처럼 뚜렷한 위상을 규정하기가 어렵다. 1976년까지만 해도 중공의 대외무역은 전세계의 0.7%에 지나지 않아 세계경제체제로부터 탈출하고 自給的인 체제를 구축하는 데 비교적 성공한 事例로 꼽혔다 (Kraus, 1979:239). 그러나 이러한 믿음에 대해 프리드만(Friedman, 1980: 181-223)은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중공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의 군사적 경쟁관계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체제라는 大命題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게다가 1970년대에는 막대한 식량수입으로 인해 자력갱생의 원칙을 크게 무너뜨리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프리드만은 중공 역시 세계체제내에서 그 위상이 주변부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중공은 동남아시아에서 소련과 군사적 대결관계에 놓여있으며, 군사력을 더욱 증강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중공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중심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세계체제 속으로 어쩔 수 없이 재편입할 수밖에 없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대결과 경쟁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사회주의 세계체제를 건설하는 꿈은 공상에 지나지 않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된 셈이 되고 말았다(Chase-Dunn, 1980). 최근에 들어 중공은 기술도입을 넘어 서방의 資本까지 국내시장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떠한 사회주의 국가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경쟁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命題에 대해서 점점 확실한 타당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동구 공산권과 쿠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면으로는 세계체제내에서 주변부로 기능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들의 경우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내에서의 주변부적 위상으로 인한 종속적 상황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으니 그것은 곧 소련에 의한 폐착취국으로서 갖는 종속의 문제이다. 이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쿠바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 2) 帝國主義論의 觀點

歷史發展 段階에서 보면 帝國主義란 獨占資本主義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 즉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적 현상의 한 末期的 단계이며, 사회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특정한 歷史的 展開過程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외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치, 경제, 군사적 친척과 피친척 관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帝國主義的 觀點이라 함은 이와같이 자본주의체제간의 제국주의적 친척과 유사한 현상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바로 이 점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적 관점이 문제로 삼는 주요한 분석 대상은 소련과 동구공산권, 소련과 쿠바, 그리고 베트남, 북한 등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이다. 이 관점은 소련과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대외관계에서도 친척—피친척 관계가 발견된다는 주장과 가정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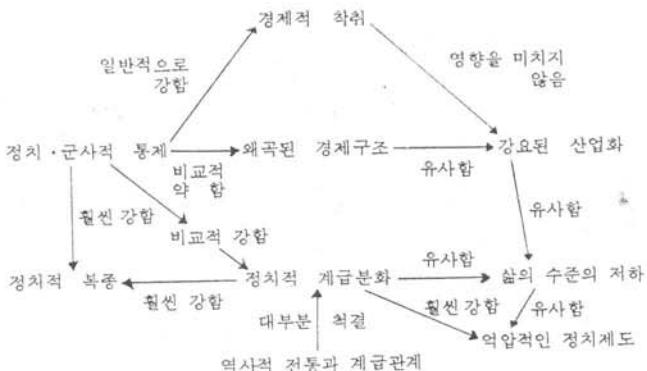
먼저 동구공산권 국가들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련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근거로 사회주의적 종속의 문제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2차대전이 끝날 무렵 소련의 팽창기에 동구는 자본주의의 주변부적 종속과 흡사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Clark and Bahry, 1983:275). 동구 각국은 전통적으로 1차원료와 농업상품의 생산국이었으며, 이것들을 서구유럽에 내다 팔고 공산품을 수입했다. 이러한 경제구조로 인하여 동구는 소수의 전통적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는 과도적 농업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만연되어 있었다. 대전 후 소련의 지배는 이들에게 전통적인 계급구조를 타파하고 고전적인 종속구조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사실상 소련의 지배 결과는 더 심화된 종속구조를 창출했을 뿐 제국주의적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소련이 동구를 지배하려는 동기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로부터 동구의 풍부한 원료는 전후 소련의 재건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소련에 대한 종속관계로 말미암아 동구의 정치와 경제에는 자본주의체제의 ‘종속적 발전’과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동구의 공산당들은 소련공산당의 직접적인 조언에 따라 정책결정을 했고 경제적으로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일례를 들면 1945년에서 1953년

사이 소련은 동구로부터 미국의 마샬플랜의 원조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원료를 착취했다고 한다(Marer, 1974:231-60). 또한 소련에 의해 강요된 스탈린식 발전모델을 동구제국에 각종 社會經濟的 歪曲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왜곡현상은 라틴 아메리카처럼 동구에도 ‘사회적 단절’ 현상을 초래했다(de Janvry, 1981:32-45). 그 결과 자본과 소비재부분은 수요와 공급관계와 내적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며, 생산과 이윤은 실질적으로 임금과 소비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아래의 그림은 소련에 대한 동구의 종속의 정도를 서구의 고전적인 종속 관계와 비교하여 표시한 것이다(Clark & Bahry, 1983:278).



이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소련은 서구의 植民主義와 흡사한 제국주의적 통제방식과 기구를 통해서 동구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배했었다. 소련과 동구는 정치적으로 매우 밀착해 있기 때문에 정치엘리트들 사이의 계급적 유대는 자본주의적 종속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하다. 동구에 대한 경제적 착취 또한 매우 체계적인 모습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종속의 경우에는 주변부에 대한 중심부 독점자본의 경제적 침투가 종속의 중요 내용을 이룬다. 이에 반해서 사회주의적 종속의 경우에는 정치·군사적 지배가 경제적 지배보다 두드러지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때문에 소련과 동구간의 경제적 착취—피착취 관계는 일면 정치·군사적인 지배관계의 부수물로 발생되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 즉 자본주의적 종속의 본질은 경제적인 것임에 비해 사회주의적 종속의 본질은 정치·군사적인 측면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Clark and Bahry, 1983:279). 스탈린식의 경제전략은 일면 동구 각국을 경제적 후진국으로부터 近代產業社會의 틀을 갖추도록 하

는 데 기여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경제성장과 이에 부수된 사회변화는 동구 각국을 점점 더 소련에 종속되도록 만들었다(Clark & Bahry, 1983:280). 동구경제의 급속한 산업화는 그 수출구조를 변화시켰으며 소련은 이들의 상품을 수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등장했다. 산업화는 동구 각국을 1차원적 수출국의 지위로부터 공산품 수출국의 지위로 변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소련 이외에 별다른 무역상대국이 없었기 때문에 종속적 상황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산업화는 결과적으로 경직된 스탈린적 정치체제를 거부하고 보다自律的인 정치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과 요구를 높이기도 했다. 산업 사회적 복합성이 더해감에 따라서 스탈린주의적인 정치적 억압장치도 차츰 그 통제기능을 상실해 갔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민들은 스탈린 치하의 전제주의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물질적인 혜택과 정치적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 결과 스탈린 이후 동구제국의 정치적 억압은 상당히 감소되었다(Benjamin and Kautsky, 1968; Eckstein, 1970). 생활수준도 향상되었고 자본주의적 종속에 연관된 외적인 취취도 한동안 눈에 띠게 감소했다(Clark and Bahry, 1983:282). 그러나 이러한 政治·經濟의 구조는 1960년대의 브라질의 경우처럼, 장차 동구가 안게 될 수다한 문제를 예고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중공업의 ‘외형적인 성장’에 촛점을 맞춘 계획경제는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어느정도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전이 계속됨에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점차 계획과정의 경직성이 노출되고, 구태의연한 관리기술과 비효율적인 투자배분 등으로 인해서 차츰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나친 中央統制 메카니즘과 資本財에 대한 끊임없는 계획입안 때문에 자본재와 소비재 부분 사이에 심각한 단절현상이 초래되었고, 한동안 개선되는 듯했던 생활 수준도 다시 후퇴하여 사회적 단절현상을 노정하게 되었다. 더우기 스탈린 시대에 자원동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던 정치와 경제의 통합적 운용관리는 점증하는 대중적 불만을 총족시킬 수 있는 대체기구의 부재현상을 초래했다(Bunce, 1982). 이리하여 1970년대에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운동이 동구제국에 광범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개혁운동과 새로운 경제계획 안은 당내 관료들의 반대와 소련의 제

동으로 무산되었다. 이처럼 좌절된 개혁운동의 대안으로써 동구체국은 그 후부터 서구의 상품과 기술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소련도 1970년대 빼땅트 정책의 일환으로 동구의 그러한 경제전략을 찬성하고 나섰고 그 결과 1970년대 초반부터 동구와 서구의 무역량은 크게 증가했다(Fallenbuchl and McMillan, 1980). 그러나 서구 상품의 수입에 충당할만한 자체 수출상품이 없었던 동구에서는 이러한 전략마저 성공할 수 없었다. 게다가 서구의 경제적 영향력은—자본주의 체제내의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동구에 대해서도 불리한 교역조건을 제공하였으며, 결코 호혜적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이다(Blaho, 1981). 소련에 대한 종속의 효과를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서구와의 경제적인 교류확대는 오히려 동구가 자본주의체제 안에 다시 또다른 양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Chase-Dunn, 1980). 소련에 대한 종속으로 말미암아서 지체된 발전을 치유하기 위해 채택된 서구와의 문호개방은 동구체국들로 하여금 또다른 형태의 종속에 얹매이도록 만들었다. 즉 동구는 소련에 대한 원초적 종속에 더하여 자본주의 세계체제내에 재편입됨으로 해서 이중구조적인 종속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쿠바의 경우도 동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쿠바의 경우는 동구보다 좀더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쿠바는 1960년대 초반에 급격한 사회혁명으로 자본주의체제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했다. 역사적 단계와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어서도 쿠바는 동구와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회주의 국가에 속한다. 그러므로 쿠바의 종속문제는 다음의 事例研究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 III. 쿠바에 관한 事例研究

#### 1. 혁명전의 쿠바 : 자본주의적 종속

혁명전 쿠바의 정치경제는 미국의 제국주의와 설탕이라는 단작위주의 생산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資本主義的 從屬體制를 이루고 있었다. 미국은 당시 쿠바의 종속적 지위를 결정지우는 中心部의 요인이었으며 설탕은 이러한 종속을 구조화시킨 社會·經濟的 요소로 작용했다. 이 절에서는 먼저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투과정과 그 결과를 歷史的 맥락과 설탕생산

및 교역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제국주의 : 歷史的 조망

혁명전의 쿠바는 미국 제국주의의 속죄양으로 표현될 만큼 미국 자본의 침투로 말미암아 종속적 상황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Goldenberg, 1966:136) 쿠바의 국민경제는 미국 경제의 필요에 의해 그 구조가 결정되는 종속적 특성을 광범하게 띠고 있었다. 자율적인 자기결정 능력을 상실한 쿠바의 政治와 經濟는 뉴욕에 있는 중역실에서 결정된다고 할 정도였다(Humberman and Sweezy, 지양사, 1984:31).

프랑크의 분석(Frank, 1969)에 의거해 보면 쿠바는 미국의 본격적인 제국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자본주의세계체제내에 편입되어 있었다. 즉 스페인의 정복으로 쿠바는 이미 ‘자본주의화’되어 식민본국에 대한 원료 공급의 기지로 편입되었다. 미국의 침투는 다만 독점자본에 의한 간접적인 침투에 의해 쿠바의 잉여가 해외로 유출되는 형태로 전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독점점 지위가 확립된 계기는 19세기부터 미국의 독점자본이 쿠바를 설탕산업의 기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17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쿠바의 경제는 당시의 자본주의세계체제에서 중심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스페인에 수평적으로 편입된 상태이기는 했으나 완벽한 노동분업구조에 의해 수직적으로 종속된 상태는 아니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쿠바의 농업은 다양한 자영농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무역도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었다(Ritter, 1975:10). 이러한 것이 18세기 말엽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한 미국의 독점자본에 의해 쿠바는 차츰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나갔다. 18세기 말을 고비로 해서 국제 설탕가격이 크게 뛰어 올랐다. 이에 편승해서 쿠바의 설탕 생산량도 급증해 갔다(Ritter, 1975:13). 이 설탕붐으로 인해 미국의 대자본이 쿠바에 급속하게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쿠바의 경제는 점차 미국 독점자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경제는 설탕단작체제의 골격을 갖추어 갔다. 철도가 건설되고 설탕산업이 기계화됨으로 인해서 미국 자본의 투자가 더욱 본격화 되었다. 한때 설탕은 쿠바 수출의 80%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미국과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었다(Ritter, 1975:351).

설탕산업에의 투자로 시작된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투가 정치·군사적인 측면으로 확대해 나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경이다. 1868년경 쿠바는 독

립을 위해 스페인과 전쟁 상태에 돌입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은 쿠바에軍事的인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소위 플래트 수정안(Platt Amendment, 쿠바의 주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 Huberman & Sweezy, 1984:25-26)이라는 것을 쿠바의 헌법에 강제적으로 삽입시켜 합법적으로 쿠바의 정치와 군사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1899년 스페인이 축출된 후 1959년 혁명이 발생하기까지 60년간 미국은 쿠바의 사회구조를 거의 완전히 종속시켰다.

플래트 수정안으로 쿠바에 대한 미국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자 미국의 직접투자는 이때부터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특히 제당산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는 쿠바의 산업지배권을 사실상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제당산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는 1906년에 3천만달러였다. 그러나 이것은 약 20년동안 20배나 증가해서 1927년에는 6억달러나 되었다(Ritter, 1975:21). 아울러 설탕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노동력, 이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공장, 운송에 필요한 철도 등도 모두 쿠바의 國內產業構造와는 무관하게 미국 자본가들의 손에 의해 마음대로 관리·운용되었다.

미국의 제국주의와 종속의 역사는 쿠바에 만연된 빈곤과 불평등을 가져왔다. 설탕의 높은 수출량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는 국내수요와 동떨어져 갔다. 토지는 대자본에 편중되었고, 정치적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서 독재적 권력이 지배하였다. 이러한 歷史的 조건들은 결국 쿠바를 혁명적 상태로 몰아갔다.

## 2) 종속경제 : 社會·經濟的 조망

쿠바의 종속을 규정지운 歷史的 요인이 미국 제국주의였다면, 쿠바의 종속을 社會·經濟的인 측면에서 구조화시킨 요소는 바로 설탕산업이었다. 쿠바의 歷史는 종종 설탕산업의 역사로 표현된다(O'Connor, 1970:12). 설탕을 중심으로 한 쿠바의 단작체제는 국내적 생산력에 기초한 민족경제체제의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든 주요인이었으며, 쿠바가 안고 있었던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생성시킨 주범이기도 했다. 쿠바의 경제는 설탕에 의해 수직·수평 양면으로 미국 자본주의 체제에 통합된 상태였다. 쿠바의 경제는 사탕수수의 양과 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사탕수수 산업은 고용실태, 철도운송, 하역노동, 상품판매, 광고활동에 이르는 모든 경제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쿠바 경제의 팽창과 수축은 바야흐로 설탕 생산량의 증감과

같은 운동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O'Connor, 1970:15).

쿠바의 사탕수수 산업은 독점자본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을 그 특징으로 했다. 사탕수수 재배농장은 대토지 소유를 기초로 고용된 임금노동자들에 의한 시장생산체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자영농의 숫자는 전체 농업노동력의 1/4도 못되었는데 비해 임금노동은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MacEwan, 1981:4). 농업생산은 설탕가공을 맡고 있는 제당공장 소유자, 지주, 농장경영자 등의 자본가들과 이들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권력층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생산, 분배, 유통 메카니즘도 이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러한 단작체제를 통해 이루어진 쿠바의 종속구조는 거칠게 된 경제성장률, 투자와 무역의 대미의존, 무역구조와 산업구조의 불균형, 삶의 질의 저하, 정치권력의 부패 등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과도한 종속구조의 제약으로 인해 혁명 전 쿠바 경제는 성장의 문화현상 이외에도 몇 가지 기형적 특징을 노정했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1948~1952년 사이의 경제성장률은 1%에 지나지 않았다. 동기간중 같은 지역내의 다른 나라들은 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프랭크(Frank, 1969)와 바란(Baran, 1957)의 理論에 따르면 이러한 쿠바 경제의 성장을 문화는 구조화된 잉여누출 메카니즘에도 크게 기인하였다. 쿠바는 自生的 산업신장이 가능한 요건을 여러 가지 면에서 갖추고 있었던 나라였다. 사실 쿠바는 비옥한 토지를 가진 나라였으며, 노동력과 자본사정도 양호한 형편에 있는 나라였다. 그러나 독점자본주의에 예속된 쿠바경제는 제국주의에 기생한 소수의 자본가 계급과 다수의 민중으로 사회를 양분화시켰고(Bray and Harrding, 1974:591) 만성적인 실업과 생산구조의 편린화(Fragmentation)를 초래했다. 그 결과 비옥한 국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이용 가능한 토지들은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또 경작지의 많은 부분들도 보다 더 생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진 상태로 있었다. 만성적인 실업으로 인해 노동력의 25%가 영구실업상태로 전락해 갔다. 이용 가능한 자본만 해도 국민소득의 12~16%나 되었으나 이것들이 생산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장되어 갔다. 골드버그는 이들 유휴자본이 잘 활용되기만 했어도 쿠바경제는 외국의 자본수입 없이도 년 4%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Golden-beg, 1966:126-127). 한편 미국은 직접투자에 대한 이윤취득의 형식으로 잉

여누출현상을 촉진시켰다. 1957년의 예를 보면 미국은 8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순이윤을 9%에 해당하는 7천만 달러의 이윤을 취득하여 국외로 송금해 갔다(Goldenbug: 1966:139-140). 잉여누출의 메카니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값비싼 정권유지비, 사치성 수입상품구조 경제와 부의 대기업 편중현상을 가속화하기도 했다. 예컨대 1950년의 한 통계를 보면 정부세입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관료기구의 유지비에 투여되었다(Boostein, 1968: 6). 또한 외국에서 쿠바로 수입되는 것의 80% 이상, 그리고 쿠바에서 생산되는 것의 대부분이 상류계급과 대기업의 사치성 소비에 집중되었다(Boostein, 1968:7).

설탕단작체제의 심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모순과 무역구조의 파행성도 점차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51년에서 1958년 사이에 쿠바의 설탕생산량은 국민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쿠바 경제는 국제설탕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매우 취약한 불안정 요소를 안고 있었다. 제조업체 수의 증가추세를 보면 1949년에 3,182개이던 것이 1953년에는 3,522개로 매우 낮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생산량의 면에서 보면 미국자본과 결합한 4.8%에 해당하는 107개의 대기업이 전체생산의 50~60%를 점유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중화학공업도—사탕수수와 마찬가지로—자본과 생산수단을 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광산업, 철강, 전기, 통신, 건설업 등도 거의가 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었다. 1958년 현재 쿠바는 수출면에서 67.1%, 그리고 수입면에서 69.9%를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다(西川潤, 거름, 1983:130). 이처럼 쿠바의 산업구조는 국민경제에 기초한 분업적인 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한채 파행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葦山靖司, 서경원, 1985:136-137).

종속구조의 社會・經濟的 결과들은 빈곤한 민중생활, 저하된 삶의 수준, 만연되는 불평등 구조, 증가하는 정치불안 등으로 나타난다. 쿠바의 경우도 그例外가 아니었음을 물론이다. 단작체제로 말미암아 쿠바의 전경작지는 절반 이상이 사탕수수 재배지로 전락했다. 그 결과 쌀을 비롯한 쿠바 국민의 주식품은 30% 이상 수입에 의존했다. 라티푼디아라고 불리우는 대토지 소유가 쿠바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는데, 1946년의 농업 센서스에 의하면 전체의 0.1%도 안되는 140개의 농장이 전체 토지의 20%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전체의 8%에 해당하는 농장이 토지의 71.1%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와 반면에 25세 이하의 중소농장은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전 토지의 3.3%밖에 소유하지 못했다(Huberman & Sweezy, 1984:19). 1953년의 센서스에 의하면 총노동력의 23%에 달하는 474,053명의 노동자가 사탕수수 산업에 고용되고 있었다(Ritter, 1975:30). 이들의 생활은 물론 매우 비참했다. 특히 사탕수수 산업은 그 수확기(쿠바에서는 이를 Zafra라고 부른다)에 해당하는 3~4개월을 제외하면 농한기여서 이 기간 중에 쿠바의 대다수 민중은 기아선상에서 시달렸다고 한다(tiempomuerto, 죽음의 시기). 이때는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만성적인 실업이 판을 치고 매년 25% 가량의 실업률이 常存했었다(Huberman & Sweezy, 1984:17).

혁명 전 쿠바의 민중생활 실태는 매우 비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농업 노동자의 연간 수입은 도시 공업 노동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빈곤과 실업은 문맹률과 직결된다. 사탕수수 재배의 중심지인 오리엔테 지방의 53년도 문맹률은 49.7%였다. 1943년의 센서스에 의하면 쿠바의 학령기 아동은 35.1%만이 입학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일생동안 의사에게 진찰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갔다. 수도, 전기, 화장실과 같은 시설도 대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고 농촌의 농업 노동자들은 거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稟山靖司, 1985:138).

자본주의적 종속의 상부구조를 이루고 있던 쿠바의 정치권력은 한마디로 억압과 통제로 대표되는 反民主的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혁명 전 쿠바의 정치체제는 국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여 누리고자 하는 기회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Bray & Harding, 1974:600). 그것은 또한 외세 지향적이란 점에서 反民族的이었고, 민중의 정치 참여를 배제한 점에서 反民衆的 權力이었다. 특히 1952년 군사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바티스타는 유례없는 탄압과 암살, 폭력, 수뢰, 부패로 악명을 떨친 독재정권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혁명 전의 쿠바는 자본주의적 종속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즉 미국 독점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침투로 말미암아 쿠바의 경제는 미국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자율적인 권한과 정책 결정의 폭은 매우 제한되었고, 경제의 잉여누출 메카니즘이 구조적으로 번져나갔다. 또한 설탕단작체제로 말미암아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는 과행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갔고, 성장의 둔화, 실업의 팽배, 삶의 질의 저하,

정치권력의 부패 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종속상황이 혁명의 결과로 어떻게 변모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 2. 혁명 후의 쿠바：사회주의적 從屬

### 1) 혁명정책의 결과들：1960～1970년대

자본주의적 종속으로 틀지워진 쿠바의 왜곡된 政治經濟는 혁명 후 몇 가지의 정책들에 의해 한편으로는 폐 성공적으로 극복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속상태는 여전히 그 모습을 달리하여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혁명후 사회주의체제로 이행해감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측면의 종속문제, 특히 분배 메카니즘의 왜곡상태는 크게 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구조와 무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인 종속은 비록 모습은 달라하지만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혁명 후 쿠바의 정치체제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토지개혁을 포함한 각종 국유화정책과 사회복지정책들이다. 우선 이 문제부터 살펴본 후에 社會主義的 從屬論에 다시 돌아가 보기로 하자.

혁명정부는 제1차로 사회주의의 원리를 따라서 토지개혁에 착수했다. 토지개혁은 낡은 생산관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쿠바를 건설하는 기초를 이룩한다는 구호아래서 과감하게 추진되었고, 쿠바 혁명의 경제적 기반을 계급이론에 입각해서 재건하기 위한 첫 시도였다. 토지개혁은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 결과 쿠바의 농업은 5카바예리아(1카바예리아는 13.42ha) 미만의 땅을 소유하는 소농제도와 집단농장제가 혼합된 소유형태에 의한 농업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소유형태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혁명전 쿠바에는 5카바예리아 미만의 소농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7.3%에 불과했다. 그러나 토지개혁 후에는 52.8%의 농지를 이들 소농들이 소유하게 되어 현저한 平等化가 이루어졌다(MacEwan, 1981:46).

토지의 재분배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쿠바가 안고 있던 종속구조의 핵심부분인 단작경영체제를 극복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종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이 균형발전되어 생산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이 다양화되어 농업부문이 공업과 구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자립적인 산업구조가 확립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개혁이 종속을 극복하는 데 과연 얼마만한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피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우선 쿠바의 사회주의 정책이 소득분배와 각

종 기회구조의 평등화에 어느정도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혁명 후의 몇가지 조치들은 소득분배의 방식을 바꾸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혁명 직후 도시의 집세가 30~50% 가량 인하되었고 도시 및 농촌 노동자들의 임금도 크게 인상되었다. 정부의 사회복지(보건, 교육, 주거를 중심으로) 예산은 3억 9천만 달러에서 13억 2천만 달러로 증대되었다. 1959년 직후부터 1961년 사이에 취해진 각종 시책의 결과를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부유계층으로부터 거두어 들인 국가 수입 중 최소한 20%는 노동대중으로 移轉되었다고 한다(Mesa-Lago, 1981:191). 이런 점에서 보면 쿠바는 혁명의 초기 단계에서 동구국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성장과 발전위주의 사회주의보다는 분배 위주의 정책에 보다 충실함으로써 고전적 사회주의 이념에 접근하고자 했던 흔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所得再分配政策과 社會福祉政策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하여 평등을 실현한다는 社會主義 理念을 비교적 충실히 따랐다. 그러나 70년대에 오면서 이러한 이념은 퇴색되고 그대신 技術發展과 生產性向上을 分배정책에 앞세우는 정책이 채택되었다(Mesa-Lago, 1981:191).

土地改革과 더불어 혁명정부는 사회 각 부분에 대한 國有化를 단행했다. 60년 7월에는 외국무역 국가독점법이 공포·시행되고, 8월에는 총 8억페소 (1페소는 약 1달라)에 달하는 미국기업(석유정제소, 제당공장 36개, 전화회사, 전력회사 등)들이 국유화되었다. 10월 13일에는 단 하루만에 국내와 외국의 은행 전부(아바나 은행 제외)와 대기업 273개(정미회사 16개, 음료 회사 6개, 커피제조회사 11개, 상점 47개, 연유회사 6개 등)가 국유화되었다(Bania Bamvira, 김현식, 1985:162-163).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혁명정부는 從屬的 資本主義와 결별하고 쿠바 경제의 自律性을 회복하고자 했다. 그 결과는 소득분배면에서 쿠바가 다른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보다 훨씬 평등해지는 효과로 나타났다. 예를들면 브라질과 페루에서는 가장 부유한 계층과 빈곤한 계층의 소득비율이 24대 1인데 비해 쿠바의 경우는 4.5대 1로 나타나고 있다(Mesa-Lago, 1981:144). 그러나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소득격차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높았다. 1953년의 국민소득 평균치에 대해 수도 아바나의 평균소득은 114.7%였으며 기타 지역은 89.4%에 달했다. 1972년에는 아바나가 113.2%, 기타 지역은 97.0%로 나타났다(Dominguez, 1978:228). 한편 혁명 후에 실시된 각종 사회복지정책으로 말미암

아서 교육·보건 등의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평등화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혁명 후의 쿠바는 혁명 전의 資本主義的 從屬狀況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괄목할만한 사실은 토지정책, 국유화, 복지시책 등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만연되어 있던 社會的 不平等構造를 시정하는 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민중의 평균적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 이후에 오면 점차 그 효과가 체감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1980년대에 이르러 쿠바는 社會主義에로의 再從屬이라는 새로운 상황으로 돌입하게 된다.

## 2) 社會主義의 從屬國으로서의 쿠바

혁명 전 쿠바의 종속적 위치를 떠받들고 있던 두 지주는 미제국주의의 착취구조와 설탕단작체제로 인한 政治經濟的 纖約性에 있었다. 혁명으로 말미암아 쿠바는 미국의 간섭으로부터는 해방되었고 그 결과 고전적 종속구조로부터는 상당히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설탕단작체제로부터의 탈피와 새로운 산업구조의 창출이란 과제에서 보면 쿠바는 종속적으로부터 해방되었다기보다 사회주의 진영(소련)으로 재종속되는 새로운 상황에 봉착해 갔다. 소련으로서의 從屬移轉은 혁명전의 종속적 상황과는 물론 판이하다. 그러나 한편 무역구조의 특징과 산업구조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쿠바의 정치경제를 보면 사회주의적 종속의 문제는 자본주의적 종속에 못지 않는 심각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1960년부터 시작된 공업화전략의 실패 및 그로 인해서 쿠바 경제가 다시 설탕산업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돌아선 과정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혁명 직후부터 쿠바는 설탕단작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농산물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전면적인 공업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혁명 전의 쿠바에는 상당한 유휴생산능력이 사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업화의 드라이브는 생산의 급속한 증대를 가져오리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화 정책은 1년도 채 못가서 벽에 부딪쳤다. 국제수지상의 곤란에 겹쳐 심각한 물자와 자금부족, 기술부족 등으로 공업화 정책은 곧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시 금 설탕산업을 기축으로 해서 관련산업을 골고루 개발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다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 기술과 물자, 외환 부족 등으로 인해 공업화 계획이 전면 실패한데다가 식량 자급

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탕수수 생산량도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Mesa-Lago, 1971:296). 이렇게 되자, 쿠바는 1970년대까지 천만톤의 설탕을 생산하겠다는 목표아래 다시금 본격적으로 설탕산업을 중시하는 체제로 돌아섰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혁명 후의 쿠바는 여전히 설탕단작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과행적인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무역구조도 여전히 과행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이 물론이다. 그 이래 설탕생산은 여전히 쿠바 국민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쿠바 경제는 혁명 전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되어버렸다.

쿠바의 경제정책적 특성을 보면 쿠바는 분명히 資本主義的 從屬體制에서 社會主義的 從屬體制로 移行해 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만 하다. 혁명 후 10년간의 농업 및 설탕생산량은 혁명 전의 1950년대 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Ritter, 1975:113). 또 혁명 후 20여년 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과거 성장의 둔화가 반드시 자본주의적 종속 때문이었다는 가설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이 기간동안 사회주의 쿠바의 경제성장률은 자본주의 개도국(LDCS)들이 같은 기간동안에 이루었던 실적에 비해 결코 높지 않았다(Mesa-Lago, 1971:34; Ray, 1983; Dominguez, 1981). <sup>(10)</sup>

무역구조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선된 점이 별로 없다. 1958년에 수출의 80%를 차지하던 설탕은 1970년에도 여전히 77%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무역수지의 적자폭도 혁명 후 오히려 훨씬 더 커졌다. 1957년에만 하더라도 쿠바는 3천4백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다. 그러나 1972년에는 4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Mesa-Lago, 1982). 또 이 무역 적자중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련과의 무역에서 생긴 적자였다. 이것만 보아도 쿠바의 혁명은 주요 무역국이 미국에서 소련으로 바뀐 데 지나지 않았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958년 쿠바에는 미국과의 무역이 전체 무역의 68%를 차지했다. 그런데 1970년에는 소련과의 무역이 52%를 차지하고 있다(西川潤, 거름, 1983:130). 소련과의 무역 적자 중 대부분은 소련에서 구입하는 석유에 대한 지불에서 생긴 것이다. 여기에다가 1964년부터 다시 채택된 설탕 위주의 새로운 발전 전략은 설탕 수출이

(10) Ray에 의하면 혁명 후 약 20년간의 실질적인 GNP 성장률은 -1.2%를 기록한다.(Ray, (1983:223)).

그다지 큰 폭으로 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수입만은 계속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西川潤(1983)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쿠바의 설탕 위주의 발전전략은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쿠바는 소련경제에로의 재종속이라는 비참한 결과에 처하고 말았다. 쿠바가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 즉 사회주의화는 再從屬의 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급진적 종속이론가들의 논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말았다(p.133).

혁명 후 쿠바는 그전보다 공업생산력에 있어서 다소 향상되었고 중화학공업의 기반도 혁명 전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게 조성되었다. 자율적인 경제능력도 혁명 전보다 현저하게 향상되고 과거 제국주의하의 잉여누출 메카니즘이 상당히 극복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쿠바의 종속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설탕 중심의 단작 경영체제는 극복되지 못한채 오히려 강화된 추세를 보여 왔으며, 소련에의 무역의존도도 여전히 심화되어 왔다. 소련에의 再從屬現狀은 쿠바가 설탕산업 중시 정책으로 다시 복귀할 것을 결정할 당시부터 그 단서가 비롯되었다. 구레와 바인클(Goure and Weinkle, 1972:72)에 의하면 쿠바가 설탕산업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변경하게 된 이면에는 바로 소련의 간섭이 있었다고 한다. 1963년 카스트로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바 있다. 이 때 소련은 쿠바의 對蘇 외채 누적 현상을 지적하면서 무모한 공업화 추진전략을 포기하고 설탕 중심의 정책으로 되돌아 가도록 설득했다는 것이다.

소련이 쿠바에 대해 이러한 노선으로 돌아서도록 한 이면에는 다음 두 가지의 의도가 작용했다고 구레와 바인클은 지적한다. 첫째로, 소련은 사회주의적 노동분업구조에서 쿠바를 설탕의 단작형태에 묶어둠으로써 설탕생산비의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자 했다. 둘째 이유는 정치적 의도에서 소련은 쿠바를 자신의 위성국으로 묶어두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이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쿠바는 미국 대신 또 하나의 제국주의적 종주국인 소련에 종속당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에델슈타인(Edelstein, 1981:235) 등도 소련은 쿠바의 경제를 설탕단작체제에 묶어둠으로써 그 종주적 지위를 보다 확고하게 하고자 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소련에 대해서 쿠바가 정치적인 종속국의 위치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표면화된 것은 소련이 체코를

침공하자 이를 쿠바가 찬양하고 나왔다는 사실이 있는 다음부터이다. 당시 소련은 쿠바에 대한 수출품목의 쿠바 도착을 지연시킴으로써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쿠바가 소련의 체코 침공을 찬양하고 나선 사실은 쿠바의 對蘇 종속이 단순히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 정치적 의존관계에 돌입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방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졌다.<sup>(11)</sup> 레이도 쿠바는 1970년 이후부터 개발철학과 경제조직 양면에서 공히 사실상 ‘소비에트화’ 되었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소련의 물질적 원조와 경제에 대한 소련의 기술적 지원은 쿠바를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쿠바의 경제는 급속히 ‘소비에트화’ 되었다는 것이다(Ray, 1983:229).

한편 쿠바의 사회주의적 종속문제는 소련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체제내에서 차지하는 주변부적 위상을 통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설탕 가격은 사회주의내의 교역에 있어서도 그 가격결정이 세계시장의 가격 변동에 상응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계로 쿠바는 사회주의로 이행한 뒤에도 여전히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일원으로서 그 영향권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쿠바는 아르헨티나등과 같이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나라들과도 여전히 무역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쿠바는 사회주의적 종속에 더하여 세계자본주의체제 내에서도 그 종속적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Eckstein, 1982:203-204). 1974년 한해 동안에 쿠바가 자본주의국가들과 한 무역량은 전체 무역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쿠바는 여전히 자본주의 경제권으로부터의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Eckstein, 1980:264).

쿠바의 종속적 상황에 대한 앞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사회주의혁명이 자본주의적 종속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쳐방하는 급진적 종속이론가들의 주장은 경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회주의혁명은 몇 가지 제한된 분야에서는 종속의 치유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종속

(11) 이러한 견해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으로는 곤잘레스와 블레시어를 들 수 있다.

곤잘레스는 쿠바의 설탕산업 중시정책이 단순히 “물질적” 동기에 대한 “도덕적”, “집단적” 동기의 표현일 뿐이라고 보고 있으며(Gonzalez, 1974), 블레시어는 쿠바의 소련 찬양은 단순한 외교적 반응일 뿐이라고 말한다.(Blasier, 1978:60).

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쿠바의例에서 社會主義化는 종속의 파트너만 갈아치우는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혁명을 종속극복의 만능책으로 취급하는 주장은 당연히 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V. 結論

앞의 글에서 우리는 종속이라는 개념이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중 어느 한 체제에만 국한되어 적용될 수 없다는 논거를 확립하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종속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사회주의 체제 또한 반드시 자본주의적 종속과 동일한 것은 아니나 “사회주의적 종속”이라는 특정적 현상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주변부와 유사한 사회주의적 주변부가 있는 한 사회주의 내부에서도 제국주의나 종속현상이 존재 가능한 것이다. 쿠바의 事例研究를 통하여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적 종속의 극복이나 탈종속의 온전한 쳐방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혁명만이 종속 극복의 유일한 전략이며 자본주의체제의 문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급진적 종속이론가들의 주장은 수정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속의 제문제는 단순히 논리적 판단이나 이론의 지평속에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역사적 연구와 경험적 분석의 대상으로서도 접근가능함을 우리는 확인했다.

쿠바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결론삼아 음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의 일반적 개념은 한 나라의 정치·경제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 능력의 제약이라는 특징으로 이해한다면, 이 개념은 자본주의체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다. 혁명 이전의 쿠바는 미국 독점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침투에 의해 자율성을 제한당했다. 그러나 혁명 후에는 소련의 정치·경제적 간섭에 의해 자율성이 여전히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점에서 볼때 사회주의 혁명이 종속극복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급진론자들의 주장은 도그마적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쿠바는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했다. 성장의 조건, 산업구조, 무역구조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종속체제적 문제를 누적해 가고 있는 것이다.

세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종속의 일반적 특징에 있어서 여러가지 공통되는 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체제의 종속은 각기 상이한 특징 또한 적지 않게 가지고 있어 접근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사회주의적 종속에 대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는 아직 미발전된 수준에 있다. 앞으로 사회주의 체제내의 개별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차 “사회주의적 종속”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론을 구축하고 경험적 연구전략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는 약간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参考文献〉

- Amin, S.  
 1984 “Expansion of Crisis of Capitalism?” *Contemporary Marxism* 9 (11):3-17.
- Bania Bamvira  
 1985 쿠바문제의 재해석, 김현식 역. 백산문고
- Baran, Paul  
 1957 *Political Economy of Growth*, N.Y.: Monthly Review Press.
- Benjamin' R.W. and J.H. Kautsky  
 1968 “Communism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March):110-123.
- Blaho, A.  
 1981 “Relations betwee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Socialist Countries: the Hungarian Case,”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Eastern Europe and L.A., Bloomington, Ind.
- Blasier, C.  
 1978 “The Cuban Soviet Link,” *Problems of Communism* 27.
- Boostein, E.  
 1968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Cuba*, N.Y.: Modern Reade.
- Bray, D.W. and Timothy F. Harding  
 1974 “Cuba” in Ronald H. Chilcote & Joel C. Edelstein (eds.), *Latin America: The Struggle with Dependency and Beyond*, N.Y.
- Bunce, V.  
 1982 “The Transformation of Eastern Europe from a Soviet Asset to a Soviet

- Liability: The Burden of Dependency Relations in the Bloc and in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ilwaukee, Wisconsin.
- Cardos, F.H. and FalleE.
- 1979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Chase-Dunn, C.
- 1980 "Socialist States 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Social Problems* 27(June):505-525.
- Clark, C. and D. Bahry
- 1983 "Dependent Development: A Socialist Varian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7:271-293.
- Dominguez, J.
- 1978 *Cuba: Order and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1981 "Cuba in the 1980s," *Problems of Communism* 30.
- Santos Dos,
- 1970 "The Structure of Depen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0, No. 2 (May).
- Duvall, R.
- 1978 "Dependence and Dependencia Theory: Notes Toward Precision of Concept and Argu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32:51-78.
- Eckstein, A.
- 1970 "Economic Development and Po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Ina'l Studies Quarterly* 25 (March):99-118.
- Eckstein, S.
- 1980 "Capitalist Constraints on Cuban Socialist Development," *Comparative Politics* 12.
- 1982 "Cuba and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in C.K. Chase-Dunn (eds.), *Socialist States in the World System*, Beverly Hills: Sage Pub.
- Edelstein, J.
- 1981 "The Evolution of the Cuban Development Strategy, 1959~1979," in *From Dependency to Development: Strategies to Overcome Underdevelopment and Inequality*, (eds.) Heraldo Munoz,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Fallenbuchl, Z. and McMillan, C. (eds.)
- 1980 *Partners in East-West Economic Relations: The Determinants of Choice*, N.Y.: Pergamon Press.
- Frank, A.G.
- 1969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 N.Y.: Monthly Review Press.
- 1980 *Crisis in the World Economy*, N.Y.: Holmes & Meier.

- Friedman, E.
- 1980 "Maoist Conceptualizations of the C.W.S," in T. Hopkins & I. Wallerstein (eds.) *Processes of the World-System*, Beverly Hills, CA: Sage.
- Furtado
- 1983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사, 윤성우 역, 한길사.
- Goldenberg, B.
- 1966 *The Cuban Revolution and L.A.* N.Y.: Praeger.
- Gonzalez, E.
- 1974 *Cuba and Castro: Limits of Charisma*, Boston: Houghton Mifflin.
- Gouldner, A
- 1977~1978 "Stalinism: A Study of Internal Colonialism," *Telos* 34(1):5-48.
- Goure, L. & Weinkle, Julian
- 1972 "Cuba's New Dependency," *Problems of Communism*, Mar.-Apr.
- Guy, G
- 1973 "Socialism and Dependenc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 No. 1.
- Hirshman, A.O.
- 1945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Berkeley: Univ. of C.A. Press.
- 1978 "Beyond Asymmetry: Critical Notes on Myself as a Young Man and Some Other Old Frien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2.
- Huberman & Sweezy
- 1984 쿠바혁명사, 지향사.
- de Janvry, A.
- 1981 *The Agrarian Question and Reformism in L.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 Johnson, C.
- 1979 "Dependency Theory and the Processe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L.A.P.* Vol. 8, No. 3-4.
- Kraus, R.
- 1979 "Withdrawning from the World System," pp.237-259 in W. Goldfrank (ed.) *The World System of Capitalism*, Beverly Hills, CA: Sage.
- Luke, T.W.
- 1985 "Technology and Soviet Foreign Trade: On the Political Economy of an Underdeveloped Superpower," *International Quarterly* 29:327-353.
- Luke, T.W. and C. Boggs
- 1982 "Soviet Subimperialism and the Crisis of Bureaucratic Centralism,"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15(1):95-124.
- MacEwan, A
- 1981 *Revolu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uba*, Gent: Fonds Leon Leseoil.

- Marer, P.  
1978 "Has Eastern Europe Become a Liability to the Soviet Union?" pp.59-81  
in C. Gati (ed.)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E. V.* N.Y.: Praeger.
- McKay, J.  
1970 *Pioneers for Profit: Foreign Entrepreneurship and Russian Industrialization*,  
1885~1913, Chicago, IL: Univ. of Chicago Press.
- Mesa-Lago, Ceds.  
1971 *Revolutionary Change in Cuba*, Univ. of Pittsburgh Press.  
1978 *Cuba in the 70s*, Univ. of New Mexico Press.  
1981 *The Economy of Socialist Cuba*, Univ. of New Mexico Press.
- Modelska, G.  
1983 "Dependency Reversal in the Modern State System: A Long Cycle  
Perspective" in C. Doran, G. Modelska, C. Clark (eds.) *North/South  
Relations*, N.Y.: Praeger.
- O'Connor, J.  
1970 *The Origins of Socialism in Cuba*, Cornece Univ. Press.
- Packenham, R.A.  
1983 "The Dependency Perspective and Analytic Dependency," in C. Doran,  
G. Modelska, C. Clavle (eds.) *North/South Relations*, N.Y.: Praeger.
- Parrot, B.  
1983 *Politics & Technology in the Soviet Union*, Cambridge, MA: MIT Press.
- Ray, D.  
1973 "The Dependency Model of L.A. Underdevelopment: three basic fallacies,"  
*Journal of Inter-American and World Affairs*, XV (Feb.):4-20.
- Ray, J.L.  
1983 "The Cuban Path to Dependency Reversal," in C. Doran, G. Modelska,  
C. Clark (eds.) *North/South Relations*; N.Y.: Praeger.
- Ritter, A.  
1975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evolutionary Cuba*, N.Y.: Praeger.
- Sutton, A.C.  
1971 *Western Technology & Soviet Economic Development Vol. 21930 to 1945*.  
Standford, CA: Hoover Institution Press.
- Szymanski, A.  
1982 "The Socialist World-System," in C. Chase Dunn (ed.) *Socialist States  
in the World-System*, Beverly Hills: Sage.
- Wallerstein, I.  
1979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Univ. Press.  
1984 "Patterns and Perspectives of the C.W.E." *Contemporary Marxism* 9(1):  
59-70.